



모두가 이 땅을 떠난다면

글 / 이 민 호 (KBMI 윤리경영연구센터 소장)

꿈

입없는 노사분규로 불안한 경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아파트 값, 부모 허리를 휘게 하는 사교육비, 생산시설의 해외이전 등으로 줄어든 일자리와 늘어나는 청년실업자, 한참 일할 나이에 퇴출되어야 하는 직장생활, 생활고로 목숨을 끊는 가족들 소식, 북핵문제로 불안한 국가안보 등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되지 않는 이 나라의 현실이 장래에 대한 희망을 잃은 젊은이들을 외국으로 내쫓고 있다.

한국을 떠나겠다는 사람들

최근 모 홈쇼핑에서는 '한국을 떠날 기회를 드립니다'라며 해외이민 상품을 판매한 일이 있다. 방송이 시작되자 80여 분 만에 983명이 이 상품을 신청해 175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방송을 조기 종영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들 이민신청자는 20대가 11%, 30대가 51%, 40대가 29%로 청장년층이 전체의 92%를 차지했다. 이것은 젊은이들이 이 땅에서는 더이상 미래를 기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얼마 전 미국교포 고국방문단으로 한국을 찾은 교포를 만난 일이 있다. 미국에서 30년을 살며 갖은 고초를 겪은 그는 이제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고 은퇴한 70대 사업가이다. 그분과 만나 반가운 인사를 나누는 것도 잠시였고,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는 대화로 시간을 보냈다.

그분에 의하면 캐나다, 미국의 한국인 거주지역 부동산값이 폭등하였고 한국의 친분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미국에 재산을 갖고 들어

갈 수 있는지 방법을 문의한다는 것이다. 또한 현재 미국 교포사회에서는 '이렇게 가다가는 앞으로 한국에는 탈북자와 조선족만 남게 될 것'이라는 농담까지 들린다고 한다.

젊은이들은 꿈과 희망을 이룰 수 없어서 이 땅을 떠나고, 경제발전에 기여하며 나라의 살림을 책임졌던 세대들은 그동안 모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이 나라를 떠났거나 떠날 공리를 하고 있는 것이다.

공정한 게임 룰이 적용되는 사회기반 필요

청장년층은 정상적인 생활로는 도저히 앞날에 대한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 사회를 진단한다. 그런 우리 사회가 경쟁력을 가질 방법은 없는 것일까? 돈이 많고 강남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비난의 대상이 되고 이 땅에 남아 있다가는 자기 재산을 잃을지도 모른다고 불안해하는 이들에게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외친다고 과연 귀에 들리거나 할까?

이 땅에 '노블리스 오블리주'가 싹트기 위해서는 먼저 공정한 게임 룰이 적용되는 사회기반을 만들어야 한다. 공정한 경쟁을 통해 개인이 꿈을 이룰 수 있고 기업이 이윤을 낼 수 있는 사회가 우선적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즉 윤리적 기반이 갖추어진 사회에서만 개인과 기업 그리고 국가가 그들의 경쟁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

그러한 사회가 올 때 성공한 기업가와 기업들은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사회를 만드는 것이 진정한 개혁이다.

(문의 : KBMI윤리경영연구센터(www.kbmi.or.kr) 02-557-1747)